

광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방의정 활동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9건 선정·발표 광주 북구 '인사권 독립'·해남 '초년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 우수사례 전국으로 공유·확산...주민편의·의회혁신에 중점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조례'가 올해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광주 북구의회와 해남군의회가 '초년 공무원 공직 적응 조례'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운영'은 민선 8기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우수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전국 광역·기초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정책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5일 강원 춘천시에서 개최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 사례 9건을 선정·발표했다. 이 가운데 광주시의회와 광주 북구의회·해남군의회 등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의회 3곳이 포함돼 다른 지역 지방의회와 차별화된 지역의회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 장흥군의회가 본선에서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광주·전남지역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이번 우수사례 선정 평가는 행안부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자치행정 ▲사회경제 ▲문화복지 ▲의회혁신 4개 분야로 나눠 시행한 공모에서 접수된 총 10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1차 전문가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17건을 선정했으며, 이 중 9건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광주시의회는 문화복지 분야에서 우수 사례로 뽑혔다. 지역 병원, 전문가들과 함께 소아·청소년 외래진료 응급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설립 조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밤중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이른 아침 소아과 '오픈콜' 현상을 해소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례 주요 내용 중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의 야간 또는 휴일 진료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도 우수사례에 힘을 실었다.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바꾼 우수 사례로도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혁신 분야에서는 광주 북구의회 인사권 독립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이 선정됐다.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인사교류 협약, 정책지원관 전문기관 위탁채용, 의회직장협의회 설립을 통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실현시키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치행정 분야에서는 해남군의 전국 최초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제정이 선정됐다. 연차가 짧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처우개선 및 갑질문화 근절·자긍심 고취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한 점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번 본선에 진출한 9건의 우수사례는 1차 심사(60%)와 현장 발표 심사(40%)를 합산해 향후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한편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행안부가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주민 삶의 질 제고·지방의원 역량 향상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 등 주민 편의와 의회혁신에 중점을 뒀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북구 자활센터 '소소마켓' 열렸어요
광주 북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활센터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소마켓'이 5일 오후 광주 북구행복마을 센터 주차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영암 무화과·고흥 유자, 피자로 만난다

반올림피자와 협업... '고르곤졸라 피자' 출시 예정

지역 대표 특산물인 영암 무화과와 고흥 유자가 국내 대표 피자브랜드 반올림피자와 만나 올 11월 말 지역 특화피자로 소비자를 찾아가겠다. 전남도는 5일 "반올림피자가 내놓는 신메뉴 '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는 고흥 유자소스 위에 영암 무화과를 듬뿍 올려 생무화과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를 아낌없이 사용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신메뉴 출시에 앞서 지난 9월 말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대전'에서 5000여명을 대상

으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큰 인기를 끌었다. 무화과의 화려한 비주얼과 함께 달콤한 유자 향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는 피자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등은 "2025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남도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Local+economy) 트렌드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국 '장 담그기 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유력

콩을 발효해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 우리의 장(醬)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것이 확실시된다. 5일 유네스코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평가기구는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유산을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등재' (inscribe), '정보 보완' (등재 보류-refer), '등재 불가' (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한다. 우리 정부가 신청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등재' 판정을 받았다.

평가기구는 심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그간의 사례를 봤을 때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종 등재 여부는 12월 2~7일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열리는 제19차 무형유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는 한국의 23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2001년)을 시작으로 최근에 등재된 '한국의 탈춤' (2022년)까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총 22건을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또 지연 '대자보 도시' 구축도 차질

7·10공구 공사 업체 못찾아 1년 지연 2030년 개통 목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일부 구간 공사가 지연되면서, 개통 일정도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민선 8기 광주시 교통정책의 핵심인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도시 구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5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공사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7공구와 10공구에 대한 수의계약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 사업비 증액 등 현실화하지 않고는 업체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수의계약 등 선정 절차를 일단 중단했다는 게 광주시

의 설명이다. 시는 이들 두 개 공구에 대해 보완설계를 한 뒤 사업비를 증액해 정부와 다시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비 논의 등에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29년으로 예정된 개통 시기도 최소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시는 공법 등을 보완해 개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지만, 가뜰이나 개통이 늦어진 상황에서 공사 추가 지연 소식이 시민들의 불만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현실화하면 참여 의사가 있다는 업체들이 있었다"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는 광주역에서 전남

대, 일곡·첨단·수완·운남지구를 거쳐 시청까지 20.046km 구간으로, 사업비는 1조 3228억원(국비 7937억·시비 5291억원)이다. 7·10공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공구는 지난해 12월 공사에 들어갔다. 7공구는 전남대 주변, 10공구는 본촌 산단을 통과하는 구간으로 도로가 좁고 지장물이나 주변 노후건물이 많아 민원 소지가 큰 '난공사'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공사 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동안 5차례 입찰 모두 유찰됐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는 2019년 착공했으며 2026년 완공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 2024. 9. 2(월) 오후 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투리보석2층)
- 수강료 :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 2024. 8. 26(월) 오후 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밀 대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광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자본감소 따른 채권자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당사는 2024년 11월 04일 임시주주총회의결에 따라 자본감소(1주당 지급하는 금액 100,000원, 보통주 1,900주를 소각하여 소각 전 자본금 200,000,000원, 소각 전 주식수 2,000주에서 소각 후 주식수 100주를 결의하였기에 본 공고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는 주권(주식양도신청)을 제출해주시고, 본 결의(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필요한 이의를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6일
주식회사 은평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공단로 49-1, 3층 (연산동)
대표이사 박양지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4. 11. 4.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1주의 금액 5,000원 주식 1주를 분할하여 1주의 금액 1,000원 주식 5주를 분할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주주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1월 내에 구주권을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6일
케이제이파트너스 주식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10, 7(가)업력동 405호 (빛가람동, 전남콘텐츠키즈지원센터)
사내이사 윤항도

합병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갑')는 상법 제 527조의 3 제1항에 따라 2024년 11월 1일에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주식회사 양주회전피에프이(이하 '을')는 상법 제 527조의 2 제1항에 따라 2024년 11월 1일에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을'을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결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6일
갑)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108번길 4, 5층 (산용동)
대표이사 임홍남, 김재영
을) 주식회사 양주회전피에프이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108번길 4, 4층 401호(산용동)
대표이사 이수미

kwangju.co.kr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칼 빌딩, 바닥 628㎡ 대형건물
대로, 롯데마트 앞

약국 하루 차량 400건, 6개월 후 10년 임대료, 유동인구 많은 빌딩 / 투자가치 최고
약국, 내과(의사 3명), 소아과, 통증과 외 기타
월 3천 4백 (수익률 6.13%)

매매가 78억 은행 42억5천 / 보9억 4천 포함
인수가 26억 1천

010-3646-8700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